

#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펼쳐나서!

남조선에서 서울, 부산시장 보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당 사이의 비난전이 더욱 고조되고 있어 민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다고 한다.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여야당이, 후보들간의 논쟁에 쫓겨난 《색갈론》이 등장하고 막말과 고성이 란무하고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부동산민원법》 발언이나 《국민의힘》의 《조선시대의 후궁》 발언, 《조선족》 발언 등 튀어나오는 막말들이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인 모욕과 비난투성이어서 여야당이 모두 당내부에 《막말주의경보》를 발령하였다.

오죽하면 전문가들도 《말실수 하나가 승부를 가를 수 있다》, 《균형추가 무너지는 건 순간》이라고 조언을 주었는가.

그 무슨 《후보단일화》문제도 민심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있다.

최근 《국민의힘》 후보들은 반 《정부》세력을 하나로 규합하는 《자유주의상식연합》을 내와야 한다고 떠들어

남조선에서 년초부터 주요 정치권력자들 돌리싸고 여야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있다고 한다.

특히 2월에 들어서서는 더욱 치열한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이전 보수 《정권》시기의 사법통단 사건에 연루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과 대법원 원장의 사퇴문제를 둘러싼 절절한 대립이 그 대표적이다.

보도원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발의를 승인하였으며 이달초에는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그리고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법원을 검주위 위한 탄핵》, 《삼권분립위반》, 《거대의석을 통한 사법부결정하기》이라고 고야

#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민심의 지향

남조선 각계층에서 반미, 반전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보도된것처럼 지난 6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련》)이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앞에서 《코로나부대 미군기지 폐쇄하라!》, 《코로나부대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이들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하는짓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COVID-19》를 옮겨 퍼뜨리는것뿐이라고 하면서 현재 남조선강점 미군의 《COVID-19》 확진자비율은 남조선주민 확진자비율의 16배에 달하는데 이것은 미군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2월 마스크도 끼지 않고 평택미군기지에서 광란적인 춤판을 벌였던 미군을 기억하는가고 하면서 남조선강점 미군은 우리를 지키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있으며 그들의 이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있다. 《코로나부대 주한미군을 이 땅을 떠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말에도 《대진련》은 《대북비라살포금지법》은 《한반도전쟁위기를

감소시키고 평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하면서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앞에서 반미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에서도 반미, 반전투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계속 활발히 전개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수성사격장 폐쇄와 직승기사격훈련중단을 요구하는 경상북도 포항지역 주민들의 항의집회와 부산항 8부두 남조선강점 미군의 새군실험폐쇄를 요구하는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투쟁, 《싸드》기지로의 공사자재와 장비의 반입을 반대하는 경상북도 성주의 주민들의 시위투쟁소식들도 널리 보도하였다.

한편 남조선언론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일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회원들은 당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언급했으나 《보안법》이 있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이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보안법》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애청은 지난해 21대



## 언론장악을 위한 여야싸움

남조선에서 언론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있다고 한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표적인 진보언론인으로 알려진 전 《KBS》사장을 내정할것을 비롯하여 주요언론통제기관과 공영언론사들의 요직에 진보경향이 강한 인물들을 내세웠다고 전하였다. 이와 함께 보수성향의 신문, 방송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언론개혁을 위한 6대언론규제법안을 발의하고 2월 임시 《국회》에서 기어코 처리하겠다고 하고있으며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마음에 들지 않는 집단의 손발을 자르고,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있고있다.

언론개혁을 둘러싼 여야간의 마찰과 대립에 대해 남조선언론 《뉴시스》는 《야

## 《허풍의 극치》, 《거짓말대잔치》

— 남조선 각계가 비난 —

대고있다.

여기에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한 《3지대》 후보들은 《아권단일화》 이후 《법우파연합》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덩달아 맞장구를 치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우리 당후보들이 내놓은 서울시 런팅정부나 자유주의상식연합 등의 구상은 《국민의당》 후보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한것》이라고 내놓고 말하였고 《국민의당》 후보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지지를 받으려고 미리 깔아놓은 소리》라고 비난했다.

남조선언론들은 보수야당 후보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내놓는 《단일화》방안은 서로 상대방의 지지층을 공략하려는것이라고 하면서 야권후보들이 서로에게 《강경보수》의 색깔을 해대거나 《국민의힘》과의 《불편한 관계》를 부각하는것도 그에 후호적인 유권자들을 떼내기

위한 접근법이라고 평하였다.

단일화를 둘러싸고 보수야당후보들이 동상이몽하며 계속될만 부리는데 대해 한 인권인사는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날까지 극심한 줄다리기 벌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개탄했다고 한다.

한편 여야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에 남조선민심이 등을 돌리고있다고 한다.

지금 부산시장보충선거에 나선 여야당의 후보들은 저저마다 여러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현상보존정세에 열을 올리고있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 서울시장선거에서 수자와 부지위지만 다른것들에 불과한것》이라고 하면서 《4년짜리 임기에도 불가능한 공약들이 1년짜리 보충선거에 등장하고있다》고 비

##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 조선민족의 미풍량속까지 말살하려고

지난날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조선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고 영원히 저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가장 악독한 민족동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부터 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을 말살하려고 날뛰었다.

일제는 《한 나라의 문화와 그의 민족성을 알리고 하거든 먼저 풍속습관을 알아야 하며 인심수향(인민들의 지향)의 표준으로 되는 미풍량속을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조선을 통치하기 어렵다》고 떠벌이면서 이를 민족동화의 《최상의 방책》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기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풍속과 제도에 대한 조사를 벌려놓았다.

일제는 1904년에 《법전조사국》이라는것을 조직하였으며 조선을 강점한 다음에는 《취조국》, 《구관제도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조사기구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놓고 조전의 모든 지방들에 있는 풍속과 제도에 대한 조사를 감행하였다.

일제는 조선풍속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사장악한 데 기초하여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을 말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우선 각종 악법들을 통해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직접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미풍량속을 가혹하게 짓밟았다.

일제가 히루는 《보안법》, 《집회취체에 관한 건》과 같은 악법들에 의해 조선민족의 정치적인 집회와 결

의 흰옷에 먹물을 뿌리는 행패까지 부리었다.

하얀 조선옷차림대신에 누런 색깔의 《국민복》에 전투모를 쓰고 《게다》를 신고 다닐것을 강요하였으며 특히 조선녀성들에게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정서가 풍겨있는 조선치마저고리대신 저들의 일본식옷차림을 강요하였다.

한편 일제는 강권적인 탄압과 함께 이른바 《개량》의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을 말살하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생활개선》 등 여러가지 구실밑에 우리 나라의 미풍량속을 하나하나 개악하는 방법으로 좀먹어 하였으며 왜색, 왜풍을 부식시켜 조전의 풍속을 완전히 일본화하는 방법으로 말살하려고 책동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가장 반동적인 일본 《친황》 숭배와 《신사참배》를 강요한것이다.



《창씨개명》을 강요한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창씨개명》을 강요당하여 관청에 모인 조선인민들

대한민국헌정회